

性理學派의 形成

嶺 南 大
李 完 裁

一. 新儒學의 導入

新儒學이 언제 우리나라에 導入紹介되었을까? 이 問題를 다루기 전에 먼저 用語問題에 잠간 言及해 둘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宋代儒學을 新儒學, 性理學, 朱子學등으로 多樣하게 부르고 있다. 이들 呼稱의 學問內容은 大體로 相通되는 것임으로 泛稱한다면 서로 混用해서 별 謬이 없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꼭 同一한 概念은 아니다. 간략히 그 呼稱의 意味를 說明해 보면, 新儒學이란 宋代儒學이 그 以前의 漢唐儒學과는 그 學問傾向을 달리 하는 새로운 儒學이란 뜻에서이고, 性理學은 宋代儒學이 다룬 核心 概念을 中心으로 붙여진 呼稱이고, 朱子學이란 宋代儒學을 集大成한 朱子란 人物을 中心으로 붙여진 呼稱이다. 그러므로 新儒學과 性理學은 宋代儒學에 있어서 그 全般的인 特性에 걸친 呼稱이고 朱子學은 宋代儒學 가운데 있어서 特定된 한 人物을 두고 붙인 呼稱이다. 그러므로 「朱子學의 內容은 性理學이다」는 規定은 成立할 수 있어도 「性理學은 곧 朱子學이다」는 規定은 成立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朱子學과 性理學을 별로 區別하지 않고 使用하고 있다. 우리가 李朝五百年동안 朱子學을 崇尚했고, 朱子學의 內容이 性理學임으로 이러한 結果를 가져 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性理學의 導入의 時期를 엄밀하게 따지고자 한다면 性理學과 朱子學이란 두 概念은 마땅히 區別하여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朱子學導入은 高麗忠烈王때 安, 白頤正등에 의하여 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常識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性理學의 導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性理學의 淵源을 周濂溪에서 잡는다면 周濂溪와 朱子와는 그 生歿年代에 있어서 百年을 넘는 相距가 있고 그동안에 性理學은 多樣하게 展開되어 왔고, 또 그 무렵 宋과 高麗와는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빈번한 往來가 있었는데 果然 忠烈王때 安珣, 白頤正이 朱子學을 傳來하기까지 宋代性理學이 전혀 우리나라에 紹介되지 아니했을까? 나는 생각컨대 朱子學導入 훨씬 以前에 宋代 性理學이 이미 우리나라에 紹介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性理學과 朱子學의 導入을 區分하고 各己의 導入經緯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性理學(新儒學)의 傳來

「宋元學案」의 龜山楊時條에 宋의 使臣 傳國華가 高麗에 왔을 때 高麗仁宗이 龜山楊時の 安否를 물었다는 記錄이 있다¹⁾. 楊時(1053~1135)는 宋代儒學의 唱導者인 程明道에게 師事하여 깊은 造詣를 가진 學者로서 그의 學問은 羅從彦(豫章)에게 傳해지고 羅從彦에서 李延平에게, 李延平에서 다시 朱子에게로 이어지는 宋代

註 1) 會傳國華使高麗, 高麗王問, 龜山先生今在何處, 國華還以聞, 召爲秘書郎, 遷著作郎, 除通英殿說書(宋元學案 楊龜山先生時)

2) 註 1 參照

儒學의 脈을 잇는 學者이다. 傳國華가 高麗에 온 것은 高麗仁宗 元年(1123) 6月이다. 中書 舍人이었던 그는 國信使 路允迪을 따라 高麗에 使臣으로 왔던 것이다. 當時 楊時는 71才의 高齡이었는데 高麗仁宗의 問候가 契機가 되어 通英殿說書의 職脚을 받았다.²⁾ 高麗史에 의하면 이보다 8年前인 1115年 즉 高麗睿宗 10年에 金端, 甄惟底, 趙爽, 康就正, 權適 등 5人을 宋의 太學에 派遣하여 儒學을 공부하게 했다. 1115年은 北宋徽宗政和 5年으로서 宋代儒學이 이미 기틀이 잡혀진 때이다. 當時 高麗와 宋은 緊密한 交隣關係에 있었고, 따라서 文物의 交易이 極히 활발하였다. 楊時生存時에 이미 그의 人品을 思慕하고 安候를 물었다는 事實自體가 當時의 交流가 얼마나 活潑했던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楊時의 安否를 물었다는 1123年은 朱子가 出生하기 7年前이고, 高麗儒者 5人을 宋太學에 派遣한 것은 朱子出生前 15年이다. 朱子가 四書集註를 完成한 것이 宋孝宗淳熙 4年(1177年)이고 이것이 冊子로 刊行된 것은 寧宗嘉定 4年(1211年)이니, 儒學者派遣(1115年)으로부터 四書集註가 刊行되기까지(1211年)는 約 百年의 時間相距가 있다. 當時 宋과 高麗의 緊密했던 國交關係로 미루어보아 이 1世紀동안 果然 朱子以前의 性理學說이 全히 紹介되지 아니했을까? 新儒學이 한창 流行하던 때에 우리의 新銳儒學者들이 그곳에 派遣되었다면 그 學問의 即刻的인 受容이 있었을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前記한 楊時에 대한 問候가 바로 性理學이 이미 紹介되었다는 傍證이 아닐까? 李齊賢이 쓴 櫟翁稗說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일찌기 神孝寺堂頭인 正

文을 난났더니 나이 80으로 語孟詩書를 잘 說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儒者인 安社俊에게 배웠다고 했다. 옛날에 한 선비가 宋에 가서 荆公(王安石)이 金陵에 물러나 있음을 듣고 그를 따라 毛詩를 배우고 일곱사람을 거쳐 社俊에 傳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詩는 全的으로 王氏義를 따르고, 論語, 孟子 및 書經에 대한 說明은 모두 朱子章句와 蔡氏傳과 合致했다. 이때 이 두책이 아직 우리나라에 안 왔을텐데 社俊이 어디에서 그 뜻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³⁾고 하였다. 王安石이 金陵에 물러나 있었던 것은 1076年에서 1085年까지의 10年間이다. 이때는 朱子が 태어나기 約 50年前이다. 이 記錄은 多少間의 問題가 없지 않으나 어쨌든 朱子以前의 宋代學問이 진작 우리에게 傳來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좋은 資料라고 생각된다.

2. 朱子學의 傳來

朱子學이 우리나라에 언제 누구에 의하여 傳來되었는가 하는 點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高麗忠烈王 忠宣王때 安珦, 白頤正등에 의하여 傳來되었다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安珦, 白頤正 두 사람 가운데 누가 正確한 朱子學傳來者인가 하는 點에 있어서는 見解가 一定하지 않다. 晦軒(安)年譜에 의하면 「安珦이 忠烈王 16年(1290年) 燕京에서 처음으로 朱子書를 얻어 보고, 孔孟의

3) 嘗見神孝寺堂頭正文, 年八十, 善說語孟詩書, 自言學於儒者 安社俊. 昔一士人入宋, 聞荆公退處金陵, 往徒之, 學毛詩, 七傳而至社俊, 故詩則專用王氏義, 語孟及書, 所說皆與朱子學章句 蔡氏傳合. 當是時二書未至東方, 不知社俊 何從得其義

正脈임을 알게 되어 그 冊을 手錄해 돌아 왔다」⁴⁾고 하고 또 安珣의 글이라고 傳하는 「諭國子諸生」이라는 글에서 「내가 中國에서 朱晦菴著述을 보니 聖人の 道를 밝히고, 佛學을 배척하여 그 功이 孔子와 작할만 하다. 그러므로 孔子의 道를 배울려면 먼저 晦菴을 배워야 한다……」⁵⁾고 하였으므로 從來學者들이 大體로 朱子學에 대한 理解와 朱子書의 첫 傳來者를 安이라 規定해 왔다. 그러나 一部 學者들은 이 記錄들을 그 後孫들이 엮은 年譜, 實記 등의 記錄임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正史의 記錄에 依據한다면 朱子學의 첫 傳來者는 安珣이 아니라 白頤正이라고 主張한다.⁶⁾ 高麗史列傳 安珣傳에는 「늙어서 朱子寫眞을 걸어 두고 敬慕하면서 號를 晦軒이라 했다」⁷⁾하였고 白頤正傳에는 「當時 程朱의 學이 처음 中國에 行하여졌으나 東方에는 傳하지 아니하였는데 頤正이 元에 있으면서 이를 공부하여 돌아옴에 李齊賢, 朴忠佐가 먼저 배워 익혔다」⁸⁾고 하였다. 이 記錄만으로는 두사람이 누가 眞正한 傳來者인가를 斷定하기 어렵다. 安珣은 1243年(高宗 30)에 나서 1306年(忠烈王 32)에 죽었고 白頤正의 生歿年代는 確實하지 않으나 安珣보다는 多少 後輩임이 分明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元에

4) 於忠烈王十六年 在燕京 始得見新刊「朱子書」 潛心篤好, 知其孔孟正脈 遂手錄其書 又寫其眞像而歸之

5) 吾嘗於中國 得見朱晦菴著述 發明聖人之道 攘斥禪佛之學, 即足以配仲尼, 欲學仲尼之道, 莫如先學晦菴.

6) 尹文學士遺稿, p. 31.

7) 晩年常掛晦菴先生眞, 以致景慕, 號晦軒

8) 時 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東方, 頤正在元 得而學之, 東還 李齊賢 朴忠佐首先師受

간 時間은 安~~珣~~은 1288년(忠烈王 14)이고 白頤正은 1298년(忠烈王 24)이니 安~~珣~~의 入元이 白頤正보다 10년 앞선다. 當時 元의 學界는 朱子學이 한창 流行하였으니 두 사람이 다같이 朱子學에 영향받았을 것은 分明하다. 그렇다면 時期的으로 앞섰던 安~~珣~~을 첫 傳來者로 推定함직하다. 그런데 安~~珣~~을 朱子學의 첫 傳來者로 推定하는데 疑惑을 가지고, 白頤正을 첫 傳來者로 推定하는 學者들이 있는데 그 主張은 주로 尹瑑均氏의 「朱子學의 傳來と その 影響に 就いて」란 論文에 의거하는듯 하다. 尹氏의 主張을 여기서 要約해 보면 安~~珣~~이 朱子學의 첫 傳來라고 記錄하고 있는 晦軒集自體에 疑惑을 提起케 하는 矛盾點이 있다는 것이다. 즉 安~~珣~~이 元에 갔을 때의 記錄에 「性理를 辯論하는데 朱子說에 잘 符合되어 學官들이 크게 敬歎했다」⁹⁾ 하고, 그의 年譜에 「先生(安~~珣~~)이 어려서부터 性理의 學을 좋아하여 義理를 研究했다」¹⁰⁾ 고 하였는데 安~~珣~~이 첫 朱子學傳來者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려서부터 性理의 學을 좋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晦軒集에는 東國通鑑에서 引用했다고 하면서 安~~珣~~이 「우리나라에 經籍이 具備되지 못한 것을 근심해서 六經과 諸子와 歷史書와 朱子新書등을 널리 求해 오도록 했다」¹¹⁾ 고 했는데 東國通鑑에는 이러한 記錄이 없는 點들을 들고 있다. 그리고 高麗史의 安~~珣~~傳에는 「……남은 돈으로 博士 金

9) 辯論性理, 合於朱子說, 學官等 大加敬歎

10) 先生自少時, 好性理之學, 研究義理

11) ……又憂東方經籍不備, 廣求六經諸子史朱子新書

다」는 記錄은 矛盾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를 矛盾이라고 보는 立場은 앞에서 言及되었듯이 朱子學=性理學이라는데 있다. 前述한 바처럼 朱子에 先行한 宋代儒學(性理學)이 진작 高麗에 紹介導入되었다고 前提한다면 이 問題는 저절로 解決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安珦이 號을 晦菴의 晦를 따서 晦軒이라 했음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朱子를 崇仰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高麗史의 朱子像을 걸어두고 敬慕했다는 記錄등이 그대로 受肯이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朱子學의 첫 傳來者는 亦是 安珦이라고 봄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高麗史 및 東國通鑑의 白頤正에 關한 記錄은 어떻게 究明되어야 할 것인가? 安珦의 文鼎등을 中原에 보내는데 부쳐서 先聖과 70人의 像을 그리고, 아울러 祭器와 六經, 諸子, 史를 求해 오게 했다」¹²⁾고 하여 朱子新書란 말은 없으니 晦軒集은 그 後孫들의 杜撰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東國通鑑의 忠肅王元年春正月條에 白頤正이 僉議評理로서 元나라에 갔는데 「當時에 程朱의 學이 처음으로 中國에 行해졌으나 東方에는 傳해지지 않은 것을 頤正이 元에서 이를 배워 돌아왔다」¹³⁾는 記錄이 있어 高麗史의 白頤正傳의 記錄과 符合되니 白頤正을 朱子學의 첫 傳來者로 봄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反論을 펴고 싶다. 첫째 尹氏가 主張한 晦軒集에 있어서의 矛盾 즉 「安珦이 어려서부터 性理의 學을 좋아했

12) 以餘貲，付博士 金文鼎等送中原，畫先聖及七十子像，茲祭器六經，諸子史以來

13) 時程朱之學，始行中國，來及東方，頤正在元，得而學之，東還

元滯在는 2年間이고, 白頤正의 元滯在는 10年이다. 따라서 朱子學에 대한 깊은 造詣는 白頤正에 와서 그 深度를 더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朱子學者로서의 白頤正에 대한 評價와 認定도 더욱 놀라운 것이어서 白頤正이 마치 朱子學의 첫 傳來者와 같은 記錄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問題도 쉽게 解決되리라 믿는다.

二. 性理學派의 形成

1. 性理學興起의 背景

高麗末期에 性理學이 그렇듯 活潑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國內, 國外的 諸與件이 그렇듯 造成했다고 생각된다. 國內的으로는 當時 國家指導理念이었던 佛敎의 타락이 性理學의 興盛을 촉진했고 國外的으로는 當時 中原을 차지한 元에서 朱子學이 크게 勢力을 얻어 있었던 것이 그 原因이다.

高麗는 建國以來 佛敎를 國敎로 하여 敎化의 根本으로 삼고 僧侶를 크게 優待했다. 그러나 佛敎崇尙의 弊害는 진작부터 나타났다. 成宗時의 崔承老의 上疏에 이미 「佛敎의 因果應報의 說에 眩惑되어 罪業을 除去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膏血을 짜내어 수많은 佛事를 하고 있다」¹⁴⁾고 했거니와 後代로 내려오면서 그 弊害는 더욱 甚해졌다. 크고 작은 佛事가 연이어 백성들이 이에 시달리고, 政權의 擁護를 받은 僧侶들의 橫暴 또한 그 極에達했다.

14) ……惑於浮屠果報之說，欲除罪業，浚民膏血，多作佛事（高麗史卷九十 崔承老傳）

그 例를들면 慈恩宗의 僧侶 英旭이 金不花의 妻와 私通하여 官이 이를 罰하러 했을때 英旭이 말하기를 「나를 罪주려 할진데 宗門을 온통 없애야 할 것이다. 지금 宗門의 僧들이 누가 나와 갈지 알겠는가?」¹⁵⁾했다. 이 한가지 事實만으로도 當時의 僧侶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甚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된 精神的狀況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精神的清新劑가 要求되었다. 이 要求에 副應한 것이 朱子學이었다.

國外的으로는 新興 元나라가 朱子學을 崇尚하였고 元과 高麗와의 緊密한 關係가 朱子學의 急速한 傳播를 가져왔다. 元은 1235年 宋의 德安을 쳐서 捕虜 가운데 朱子學의 大儒 趙復을 얻고 太極書院과 周子祠를 세워 宋儒인 程明道 程伊川, 張橫渠, 楊龜山, 游廣平, 朱晦菴의 六君子를 配享하고, 그에게 朱子學을 講하게 하였다. 그 後 許魯齋衡이 이를 繼承해 일어나 元의 朱子學은 크게 活潑해졌다. 當時 高麗는 元의 壓力에 견디지 못하고, 高宗 46年(1259年) 太子僕이 元에 入朝하게 되고, 그후 元世祖는 王女를 高麗王子(忠烈王)와 婚姻을 시킴으로서 兩國關係는 급작히 緊密한 關係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高麗의 風俗은 점차 元의 風俗을 따르게 되고 文物制度 또한 元을 본받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元에서 한창 活潑했던 朱子學이 새로운 學問으로서 高麗에 收容되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더우기 高麗의 國內의인 精神風土가 上述한 바와같이 새로운 氣風을 要求하고 있었고 또한 朱子學(性理學)의 學問의性格이 過去儒學의 倫理的, 制度的 側面的 強調에서

15) 若欲罪我，須罷宗門，今宗門僧，誰非我哉

形而上學的 世界觀의 側面的 深化를 가져 왔음으로, 高麗思想史에 있어서 佛敎는 修身之本으로, 儒敎는 理國之本으로 看做했던데서 한걸음 나아가 朱子學(性理學)이 理國之本만이 아니라 佛敎가 擔當했던 修身之本의 役割까지도 代身할 수 있게 됨으로써 朱子學의 普及은 急速度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朱子學의 展開

徐居正의 「東人詩話」에 의하면 「忠烈以後 輯註가 처음으로 行해지고, 學者들이 다투어 性理의 說을 공부했다. 益齋以下 稼亭, 牧隱, 圃隱, 三峯, 陽村등 여러 先生들이 연이어 나서 道學을 밝히게 되었다」¹⁶⁾고 하였다. 安尙, 白頤正등이 처음 朱子學을 傳來해온 後 朱子學(性理學)에 대한 공부는 禹倬, 權溥등에 의하여 깊어져 갔던것 같다. 禹倬傳에 의하면 朱子學이 처음 傳해졌을때 이를 아는이가 적었는데 禹倬이 閉門探究하여 그 奧義를 解得하게 되고 이를 傳授함으로써 東方에서 理學이 처음으로 行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權溥는 朱子の 四書集註를 刊行하여 널리 폈다. 그러므로 그의 傳記에 「東方의 性理之學은 溥로부터 註를 重視하게 되었다」¹⁷⁾고 하였다. 朱子の 四書集註의 장려는 곧 朱子學의 장려인 것이다. 이들을 이은 學者는 李齊賢을 들 수 있다. 李齊賢은 白頤正과 權溥에게 배우고 元에 留學하여 識見을 넓혔다

16) 忠烈以後 輯註始行, 學者競發 入性理之域, 益齋而下, 稼亭, 牧隱, 圃隱, 三峯, 陽村, 諸先生, 相續而作, 倡明道學

17) 東方理性之學 自溥倡註

흔히 李齊賢을 文章家로서만 다룬다. 그러나 그의 著인 樸翁稗說에서 「내 집에 朱晦菴註가 있는데 읽으면 얼음이 녹듯 확 풀리고 시원하게 理가 順調롭다」¹⁸⁾고 한 것을 보면 그도 朱子學에 깊은 理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李齊賢의 學問은 李穀에게 傳해지고 李穀의 學問은 그 아들인 李穡에게로 傳해졌다. 李穀과 李穡父子는 모두 詞章에 能하여 그들의 文集에도 詩賦가 많고 性理學의 理論이 적다. 그러므로 單純히 文章家로서만 치고, 性理學의 素養을 看過하기 쉬우나, 그들의 文章을 자세히 살펴보면 確然하게 性理學의 바탕위에 서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牧隱集에서 「戒愼이란 무엇인가? 天理를 간직함이다. 愼獨이란 무엇인가? 人欲을 막는 것이다. 天理를 간직하고 人欲을 막는 것은 모두 至極하게 하면 聖學이 完成된다」¹⁹⁾고 하였다. 이것은 朱子學의 核心을 잘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牧隱의 學問은 깊은 麗末의 諸儒들, 鄭夢周, 李崇仁, 權近등이 모두 그의 門下에서 나왔다. 그 中 鄭夢周는 東方理學의 祖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性理學에 關한 理論的 著述을 남긴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의 朱子學에 대한 理論的 理解가 얼마나 깊었던가를 論하기는 어렵다. 牧隱이 鄭夢周를 일러 橫說堅說이 모두 理致에 맞는다고 했으니 理에 대한 體得이 놀라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理論的 著述보다 性理學에서 崇尚하는 正統과 節義精神을 實踐的으로 보여줬다는데서

18) 吾家 有朱晦菴註, 讀之所謂渙然氷釋, 怡然順理者也 (樸翁稗說後集 一)

19) 戒愼之何, 存天理也, 愼獨之何過人欲也, 存天理 人欲, 皆至其極, 聖學歟畢 (牧隱文 卷十伯仲說)

높이 評價될 수 있다. 高麗末, 李朝初에 걸쳐 朱子學을 깊이 理解하고 이를 理論的으로 整理한 學者로는 鄭三峯과 權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學問的業績은 李朝에 와서 發表된 것인데 鄭道傳의 佛氏雜辨과 心氣理篇은 그 두드러진 作品들이라 할 수 있고, 이 佛氏雜辨과 心氣理篇에 대한 權近의 入學圖說은 朱子說에 대한 깊은 理解를 보여주고 있다. 李朝는 建國과 더불어 朱子學을 官學으로 삼고 鄭道傳, 權近등이 官學을 主導하고 한편 在野에서 吉再 系統에서 金叔滋, 金宗直, 金宏弼, 趙光祖등이 相承하여 일어나 綿綿히 그 脈을 이어가 마침내 退溪, 栗谷에 이르러 우리나라 性理學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三 . 結 論

朱子學이 우리나라에 傳來한 것은 高麗 忠烈王代라 할지라도 北宋 性理學이 우리나라에 紹介된 것은 高麗 睿宗, 仁宗朝로 推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性理學이 진작 우리나라에 紹介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當時 高麗의 佛教勢力에 壓倒되고, 또한 鄭仲夫亂以來 武斷政治에 의하여 文運이 暢達되지 못함으로써 性理學도 導入以後 별로 活氣를 띄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狀況下에서도 一部 新進士類들에 의하여 性理學은 傳授探究되었는 듯하다. 그러다가 新興 元나라에서 朱子學을 崇尚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武斷政治가 終熄되므로써 性理學(朱子學)이 물밀듯 들어 오게 되고 그리하여 새로운 學問으로서의 性理學派의 形成을 보게 된 것이다.